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사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병행
국민평생통장

- 4만 원에 정기예금 30만 원까지
- 1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 30년 이상 저축하면 10%까지
- 30년 이상 저축하면 10%까지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환 / 발행인: 김광삼 / 편집인: 김광삼 / 논설위원: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7월 1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21세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는 무엇일까. 민족통일 과학화 정보화...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하나가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정했다. 딸로서 아내로서 시어머니로서 가족관계상 주어진 역할 외에도 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해야 할 몫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성(性)적 차별을 두지 않은 인간평등을 기르치신 부처님의 여성관을 새겨 본다. <편집자주>

세상에는 남존여비의 관습이 있지만 부처님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다만 불성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대실채니건지소설경>

여자는 무엇보다 단정해야 한다. 단정하다는 것은 얼굴이나 몸매나 의복등 겉모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마음을 한결같이 공손하게 가지는 일이다. <육아경>

물개가 굶은 열리한 아내는 어머니가 되면 자식을 출몰케 키우기에 족하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큰 인물이 된다. <잡야합경>

세상에는 일곱 종류의 아내가 있다. 첫째 자애로운 어머니같이 지아비를 돌보고 삼기는 어머니같은 아내, 둘째 누이동생이 오라버니를 대하듯 지아비를 공경하는 누이같은 아내, 셋째 사적이고 비밀스런 일을 항상 서로 의논하고 행동이 어긋나고 잘못됨이 없도록 서로 가르쳐서 지혜가 더욱 밝아지도 록 하는 친구같은 아내, 넷째 시부모와 남편에게 성의

여인들은 다섯가지 욕심이 강하다. 호화롭고 귀한 집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부귀한 집에 시집가기를 바라고 남편이 자기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고 자식이 많기를 바라고 집안에서 제 마음대로 하기를 바란다. 비록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은 복이 없으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중일야합경>

특별정담 - '문화월드컵' 이렇게 열자 3면

'불교정화사' 정리된다 15면

불교비디오 시청각 교재로 각광 13면

기획연재 - 경주남산 재조명 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해인사 산문폐쇄 불사

15일 가야산 골프장 건설반대 결의대회 일주스님등 지식인 110명 백지화 촉구

국립공원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해인사가 산문폐쇄도 불사기로 하는 등 각계의 반대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인골프장 건설 저지 해인총합대학(위원장 삼법 해인사주지)은 지난 2일 긴급회의를 열어 산문폐쇄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15일 본발사 주지스님을 비롯 1천여명의 사부대중들이 참석하는 '골프

장 건설 저지 산문폐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전국 18개 강원 6개 산문과 안대내 반대운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해인강원 하인스님들은 지난 8일부터 골프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하루 4차례 8시간씩 가행(加行)정진기도에 들어갔다.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지난 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 훼손도 우려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산문폐쇄에 따른 자연생태 파괴와 지형·풍향의 변화, 독성농약 분발침투로 강강각에 보존된 팔만대장경 훼손이 우려된다. 대책위 지산스님은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해인사부근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



가야산 국립공원내 당 사업승인 전면백지화를 위한 110인선언 및 기자회견

라며 훼손에 대비해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앞서 지난 1일 각계 대표인사 110명은 서울 세실레스호텔에서 '해인골프장 건설 전면 백지화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일주 조계종총무원장과 이세종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고은 시인, 권숙표 연세대명예교수, 김상현 정율병 아부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문체부의 허가취소 결정을 반박한 6월 19일의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전국 민과 후손들을 위한 공공의 자선인 국립공원을 지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명백한 반환경적 판결"이라고 반박하고 사법부의 재고를 요청했다. 문체부도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곧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대구·경북대책위원회도 매주 1회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캠페인, 대학위 소속단체 입주 건물에 현수막 부착, 가야개발 대표 김신국씨 소유의 공간에 식장 이용안하기 등 구체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 제출 등의 법적 대응과 백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성호·이윤호 기자>

사찰 문화재관람료 인상 '혼선'

조계종 관람료위구성...10일 합동징수사찰 주지회의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 국토순례단은 지난 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족적 양심과 신앙의 결단에 따라 국민들에게 조국통일 3대원칙을 상기시키고 남북합의서 이행 남북합의 이행 촉구 종교인협 국토순례단 추구를 위해 남북을 순례했다"고 밝히고 남북합의서 이행 촉구 종교인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국토순례 당시 펼친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관람료인상에 따라 △안 내원 고장재치 △사찰 소개 영상물 상영 △안내관 정비 등 사찰 참배객을 위한 서비스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인원 '지장보살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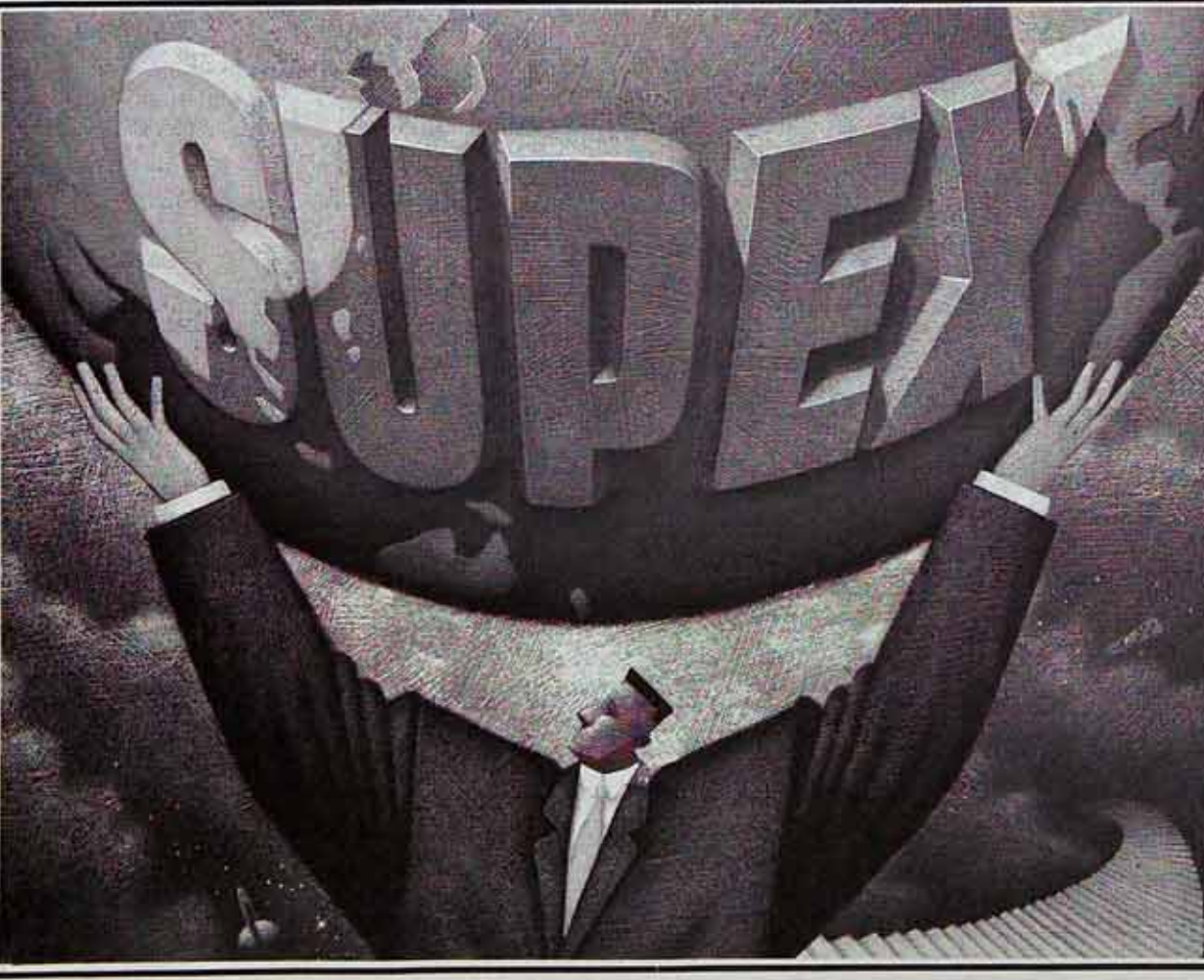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니다

△도영 금산사주지: 금산상고 전라고(2구좌) △브일 윤정암주지: 청양여상(1구좌) △조해형 불교방송사장: (3구좌) △윤용숙 한국여성문제연구회회장: 범종중학복자관(20구좌) △주영은 향원문화재단이사장: 아산지역(5구좌) △차명호: 울산 학생고(1구좌) △함규홍: 울산고 울산중(2구좌) △이명식: 화북중(1구좌) △서동해: 중앙여고(1구좌) △이재철: 성광여고(1구좌) △이상열: 성신고(1구좌)

(7월4일 현재 총 354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지역 학교·출신학교·지녀의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 온라인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바랍니다. ◇주영은이사장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가 보호막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바뀌고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펙스를 추구해왔습니다.

수펙스(SUPER EXCELLENT 수준)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